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4호 [루계 제25863호] 주제 106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정중히 모시였다.

함박눈이 내리는 겨울날에 건설장을 찾으시어 공사와 관련한 귀족한 가르침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색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평양거리건설의 용대한 구상을 펼쳐시며》가 화학건설현장에서 모셔졌다.

우리의 화학공업 기지 건설을 통일적으로 맡아하는 면 합기업소를 조직하여 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기업소가 건설하는 대상들을 20여 차

례나 찾아주시고 건설방향과

방도를 훤히 밝혀주시었으며

로 동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구들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통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남홍파

홍남기의 가스화공정과 대각성년

국립창공장을 현지지도하시

모자이크벽화《만경대에

발전소를 비롯한 나리의 중요대

상건설을 말려주시고 걸을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미령블로코공장의 근로자들

은 몸소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당의 옹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실

현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인 일시적 후회를 지워하시며 재

전격을 위한 준비사업을 구상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하고 있다.

만경대에 국립창공장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여 갈 일꾼들

과 종업원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모자이크벽화《만경대에

국립창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쟁에 대해 우뚝 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

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



#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대표 축구선수들 귀국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친 우리나라 대표 축구선수들이 19일 귀국하였다.

지난 8월부터 16일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중국, 남조선, 일본팀들과 경기를 하였다.

승전소식을 기다리는 조국과 인민의 기대와 당부를 새겨안고 우리의 미녀 축구선수들은 불굴의 힘으로 경기정신과 확고한 기술전술적 우세로 첫 경기에서부터 평의 꽃을 떠뜨리며 중국팀을 2:0으로 물리치고 남조선팀을 1:0으로, 일본팀을 2:0으로 타승함으로써 또다시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

달을 쟁취하였으며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대회 3연승을 기록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윤미선수에게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 최우수 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이, 김남희선수에게 최우수방어수상이, 김명순선수에게 최우수문지기

상이 수여되었다. 우리의 대표 축구선수들이 거둔 자랑찬 경기성과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펼승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영양을 일으켜가는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고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위원장인 내각부총리 리봉남동지, 체육상 김일국동지, 판교부문 일군들이 국제무대에서 주제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파시한 대표 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을 뜨겁게

마중하였다. 체육인들과 가족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봉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 서 경기성과를 열렬히 축하해 주었다.

승리의 보고를 알고 선수, 감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절세 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그들은 주체체육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밟혀주고 체육강국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조선중앙통신】



## 애국의 마음안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자

### 절약형 경영전략과 경제강국건설

◇ 최근 에너르기절약형, 재자원화실현으로 줄달음치는 굴지의 화학기업의 현실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면접기업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석탄선별과정에 나온 수십만t의 공업폐설물의 재자원화를 실현하고 발달로의 퍼스를 증가생산에 힘을 끌어주며 주체비료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증기생산을 위한 보이자의 평창공정에는 발전능력이 큰 2대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적지 않은 양의 전력을 저저나 다름없이 얻을수 있는 전망도 열어놓았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각의 한 일군은 「남홍땅에서 새차게 타오르는 생산적양의 물길은 증산질약투쟁을 강화할때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당에 대한 당정책의 경영전략을 중요하게 끌어쥐고나가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르기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을 재자원화하며 원료와 연료, 재소비율을 극히 줄이면서 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강국건설의 힘으로 보관나들이 열어져주고 해도 절약형의 경영전략을 중요하게 끌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조건에서 보다 큰 생산적양의 물길을 지펴올려 이땅, 이 하늘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님원, 강국님원을 하루빨리 빛나는 현실로 꽂피울수 있다.

◇ 나라의 경제를 에너르기절약형, 로열절약형, 재자원화실현에 힘을 끌어주시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매우

우 철학한 문제로 나선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에너르기생산방식을 개선하여 나라의 경제를 에너르기절약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르기 기초로 경제강국건설의 힘으로 보관나들이 열어져주고 해도 절약형의 경영전략을 중요하게 끌어쥐고나가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르기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을 재자원화하며 원료와 연료, 재소비율을 극히 줄이면서 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강국건설의 힘으로 보관나들이 열어져주고 해도 절약형의 경영전략을 중요하게 끌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조건에서 보다 큰 생산적양의 물길을 지펴올려 이땅, 이 하늘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님원, 강국님원을 하루빨리 빛나는 현실로 꽂피울수 있다.

◇ 나라의 경제를 에너르기절약형, 로열절약형, 재자원화실현에 힘을 끌어주시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매우

우 철학한 문제로 나선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에너르기생산방식을 개선하여 나라의 경제를 에너르기절약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르기 기초로 경제강국건설의 힘으로 보관나들이 열어져주고 해도 절약형의 경영전략을 중요하게 끌어쥐고나가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르기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을 재자원화하며 원료와 연료, 재소비율을 극히 줄이면서 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강국건설의 힘으로 보관나들이 열어져주고 해도 절약형의 경영전략을 중요하게 끌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조건에서 보다 큰 생산적양의 물길을 지펴올려 이땅, 이 하늘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님원, 강국님원을 하루빨리 빛나는 현실로 꽂피울수 있다.

◇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국가경제기관 일군들부터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승리의 열쇠로 튼튼히 들어쥐고 나라의 경제를 절약형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전망성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에너르기분체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의의를 가지는 간접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를 집중하여 최소한의 원가로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질어야 한다.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에너르기 절약, 로열절약, 재자원화실현에서 세기되는 경기력을 기반으로 힘을 끌어내기는 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학술기획과 제작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W의 석탄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춰나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재제작동을 것 부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끌어내야 한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지금 우 리곁에 없다. 그는 우리가 취재길에서 늘 만나고 하던 일군들중의 한 사람이다.

왜 그렇지 않으랴.

남포시도시건설사업소 부지배 인으로 사업하면 리경진동동무가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특 해운성으로 소환되어 항만수상 운수관리국 부국장을 거쳐 부상으로 일한 지난 8년기간 그가 서있을 위치는 언제나 우리 당이 중시하고 깊은 관심을 돌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1선 참호였던 것이다.

단천항건설장,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함북도 북부부회복구전 투장... 지금도 불과 몇달전에 특해운 성체육단건설장에서 만났던 그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열정에 넘쳐 건설전투를 지휘하던 불같은 그 모습.

몸은 비록 우리곁을 떠나갔지만 당시 그의 삶은 결코 잊을수 바친다. 일군들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조선로동당원들에게 당원은 당과 조국, 인민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어 애하는 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 대 한 명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람의 삶의 가치와 보람은 그가 한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따로 규정됩니다. 당원들은 주체혁명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전위투사, 선봉투사들이다.

##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과 더불어 빛나는 삶

### 북해운성 부상이었던 리경진동 무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포 항만건설사업소로 토목사로 부지배인으로 사업하면 리경진동무가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해 특히 해운성으로 소환되어 항만수상 운수관리국 부국장을 거쳐 부상으로 일한 지난 8년기간 그가 서있을 위치는 언제나 우리 당이 중시하고 깊은 관심을 돌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1선 참호였던 것이다.

이런 투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생활길을 헤치는 척 하면 되고 전진하는 대오의 기관차가 되어 당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발하게 착상을하고 대답하게 실천하도록 담벼파 배짱을 안겨준 원동력이었다.

방파제의 밀단기초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운명인가?

어버니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단천항에서 배고통수리가 높아 놀라워지면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저상의 파업이고 최상의 믿음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저버린 삶을 백년을 살면 뭘하고 천년을 살면 뭘하겠는가?

신념만 굳건히 못해낼 일이 없다는 그의 입장은 이처럼 투철하였다.

조국땅에 솟아오르는 건축물은 어느것이나 다 새제작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리경진동무의 창조의 높이와 땀심은 단천항 종합청사에도 력력히 어려웠다.

그는 설계와 시공을 맡아보는 설계원과 며칠밤을 끝으로 밤하늘에 놓여 있는 연구기판들을 찾았더니며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찾았기 위해 출장길을 뛰어들었다.

마침내 바다를압력에 의하여 바다밀 모래가 세멘트처럼 굳어져 있는 조간에서 그자체를 방파제기초로 하는 물조각기초부제에 의한 공법을 비롯한 혁신적인 공사방법들이 창안되어 공사 속도를 높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통부의 가슴속에는 당시 달려온 전투임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참된 당원의 자각이 깊이 새겨졌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리경진동무에게 있어서 한가지 일을 해도 기성의 방법이나 틀에 매달려서는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발하게 착상을하고 대답하게 실천하도록 담벼파 배짱을

『그때 무엇이 안전하지 못하단 말인가? 방파제기초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운명인가?』

어버니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단천항에서 배고통수리가 높아 놀라워지면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저상의 파업이고 최상의 믿음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저버린 삶을 백년을 살면 뭘하고 천년을 살면 뭘하겠는가?

신념만 굳건히 못해낼 일이 없다는 그의 입장은 이처럼 투철하였다.

조국땅에 솟아오르는 건축물은 어느것이나 다 새제작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리경진동무의 창조의 높이와 땀심은 단천항 종합청사에도 력력히 어려웠다.

그는 설계와 시공을 맡아보는 설계원과 며칠밤을 끝으로 밤하늘에 놓여 있는 연구기판들을 찾았더니며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찾았기 위해 출장길을 뛰어들었다.

마침내 바다를압력에 의하여 바다밀 모래가 세멘트처럼 굳어져 있는 조간에서 그자체를 방파제기초로 하는 물조각기초부제에 의한 공법을 비롯한 혁신적인 공사방법들이 창안되어 공사 속도를 높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장관에 도입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방파제의 안전성여부를 두고 여기저기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던 것이다.

지금도 단천항건설 때 함께 일 하던 일군들은 기술협의회에서 물갈이 토대로 그의 목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때 무엇이 안전하지 못하

단 말인가? 방파제기초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운명인가?』

어버니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단천항에서 배고통수리가 높아 놀라워지면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저상의 파업이고 최상의 믿음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저버린 삶을 백년을 살면 뭘하고 천년을 살면 뭘하겠는가?

신념만 굳건히 못해낼 일이

없다는 그의 입장은 이처럼 투철하였다.

조국땅에 솟아오르는 건축

물은 어느것이나 다 새제작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리경진동무의 창조의 높이와 땀심은 단천항 종합청사에도 력력히 어려웠다.

그는 설계와 시공을 맡아보는 설계원과 며칠밤을 끝으로 밤하늘에 놓여 있는 연구기판들을 찾았더니며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찾았기 위해 출장길을 뛰어들었다.

마침내 바다를압력에 의하여

바다밀 모래가 세멘트처럼 굳어져 있는 조간에서 그자체를 방파제기초로 하는 물조각기초부제에 의한 공법을 비롯한 혁신적인 공사방법들이 창안되어 공사 속도를 높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장관에 도입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방파제의

안전성여부를 두고 여기저기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던 것이다.

지금도 단천항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결코

방파제기초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운명인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방파제기초

를 창안해낸

것이다.

그는

방파제기초

를 창안해낸



